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너무 쉬워서 어려운 것이다

학승이 물었다.
“학인은 단에서 왔습니다. 원컨대 화상께서 가리켜 주십시오.”
조주 스님이 말했다.
“겨우 문에 들어섰지만 손살 같이 얼굴에 침을 뱉어 주리라.”

問 學人遠來 請和尚指示 師云 纔入門便好 蘸面唾

선사들은 수많은 말을 하면서도 막상 ‘그 것’에 대해서는 왜 꼭 이렇게 지시하는 것일까? 황벽 스님도 임제 스님에게 주장자 3타를 내렸을 뿐이다. 눈 뜬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런 것이 오히려 바르게 가리킨 것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본 남자가 여기에 대하여 평을 하자면, “너무 쉬워서 어려운 것이다”라고 하겠다.

선사들은 빈(貧)에게 감정이 없다. 사람을 깨닫게 하기 위한 자비심만 있을 뿐이다. 때로는 찾아오는 사람의 발목을 부러뜨리고, 혹은 손가락을 자르고, 혹은 암흑에 가두어두기도 하지만, 깨어난 사람들은 한결 같이 스승의 은혜를 평생 잊지 못했다. 멀쩡한 바보로 일평생

사느니 깨어난 불구자로 한평생 사는 것이 훨씬 다행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즉시 절단하는 한 가닥의 길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회남에서 오는 배는 도착했는가?”
학승이 말했다.
“모르겠습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아야, 기쁘다. 도착했구나.”

問 如何是直截一路 師云 淮南船子到也未 云 學人不會 師云 且喜到來

회(淮)는 하남성(河南省)의 동박산(桐柏山)에서 연원(淵源)하는 강의 이름이다. 그 남쪽을 회남(淮南)이라고 하고 북쪽을 회북(淮北)이라고 한다. 아마도 회남에서 조주(趙州; 지역명)에 오는 길에 뱃길이 있었던 모양이다.

그런데 질문자가 처음 방문한 자이거나 절에서 참선만하는 남자(衲子)라면 회남에서 오는 배가 도착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있을

것이다. 조주 선사도 그것을 안다. 조주 선사는 학인을 깨닫게 하려고 비유로 스스로 알게 한 것이다.

직절일로는 직절일구(直截一句)를 말한다. 직절일구는 ‘즉시 끊어내고 들어가는 한 마디’이다. 일체를 단번에 끊어내고 성인의 경지에 확 들어가는 한 마디, 오랫동안 본신(本身)을 잊어버리고 중생으로 살아가던 삶을 청산하고 단번에 부처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단 한 마디를 하라하면 그것이 무엇일까?

조주 선사는 학승에게 회남에서 오는 배가 도착했느냐고 물었다. 학승은 당연 모르고 있으므로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때 조주 스님은 대환영의 박수를 치면서, “아야, 네가 이제 저 언덕에 도착했구나. 반갑다. 남자여!”라고 말한 것이다. 조주 선사는 학승이 스스로 체험 속에서 그 답이 나오도록 유도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본 남자가 평을 하자면, “허, 그렇게 돌아오면 될 것을...”이라고 하겠다.

학승이 물었다.
“조사가 인도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왜 절에 와서 나를 욕하는가?”
학승이 물었다.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나는 절에서 그대를 욕할 수 없어.”

問 如何是西來意 師云 因什麼向院裡罵老僧 云 學人有何過 師云 老僧不能就院裡罵得? 黎

절에 와서는 조용히 뜰을 구경하고, 간혹 스님을 만나면 공경히 합장하되 비굴해서는 안 된다. 할 일이 보이면 두 팔을 걷어붙이고 울력에 동참해야 하고, 누가 삼보를 훼손하려고 하면 앞장서서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절에 와서 조용히 걷고, 예배하고, 일하고, 청수(淸水)를 마셔보라. 문득 그대가 곧 부처임을 깨달을 것이다. 그 깨달음을 가지고 산을 내려오면 그대는 천하를 얻은 것 보다 더 행복해질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선사가 그대들에게 주는 가르침이다. 그 외에 선사에게 뭘 물으면 선사 를 욕하는 것이다. 적어도 선사들은 객에게 그런 것을 묻지 않는가.

무불선원 선원장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①



자신을 의지처로 삼고 자신에게 귀의하라 <대반열반경>

거미는 자유가 없다. 그의 생존 자체가 거미줄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거미줄은 그물이다. 물론 그 거미줄 위는 그의 삶을 가능케 하는 조건이기도 하지만, 거미는 그 삶의 조건 속에 가두어져 있다.

우리 인간들의 삶이 저 거미와 얼마나 다를 것인가? 거미줄, 그물망, 이를 영어로는 넷(net)이라 부른다. 우리는 그 넷 위에서 살아가지 않을 수 없다. 핸드폰, 인터넷, 그리고 마침내는 SNS라 부르는 최첨단의 통신망까지. 긍정적인 기능도 적지 않다. 마침내 세상이 바뀌었다. 그렇지만 과연 그것들이 인간을 늘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

어쩌면 우리들은 그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 어딘가에 소속되지 않으면 안 되고, 그 어딘가로부터 인정받지 않으면 안 되는 종속면 수가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마침내 우리는 자신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문제는 우리가 고독할 줄 모른다는 데 있다. 고독, 그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라 삶에 이르는 약이다.



오늘날 진정으로 구도자가 있다면, 그는 이러한 그물망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일 것이다. 인터넷으로부터, 휴대전화로부터, 그리고 SNS의 그물 밖에서 노니는 한 마리 고기처럼 말이다. 자유인은 고독한 자이고, 고독한 자는 구도자다.

그물망으로부터 자유로워야 구도자
가르침에 귀의 스스로 길 찾아야

고독하지 않을 때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내면을 바라볼 수 없게 된다. 고독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마음길이 어디로 향해 가는 지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현대사회라는 이 지독한 풍토(風土)가 주는 병들은 고독을 통해서 치유해야 한다. 고독만이 치유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치유의 미래는 그렇게 밝아 보인다고 어디에서도, 누구에 의해서도, 이 고독을 말하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오직 우리 부처님만이 고독의 깃발을 높이 드날리셨다. “너희들 비구도 자신을 의지처로 하고 자신에게 귀의할 것이며 타인을 귀의처로 하지 말라. 또 진리를 의지처로 하고 진리에 귀의할 것이며,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강기회 옮김, <붓다의 마지막 여로>)

이 말씀은 열반을 앞에 둔 부처님께서, 그의 열반 이후에 교단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요즘 말로 하면, ‘유훈통치’ 하지 말라는 것이다.

“여래는 ‘비구의 모임은 내가 지도하고 있다’ 든가, 혹은 ‘비구의 모임은 나의 지시를 따르고 있다’ 고 생각한 일은 결코 없느니라.”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씀일까요?

바로 우리 모두가 우리 스스로에게 귀의하고, 부처님께서 일찍이 설해주신 가르침에 귀의하여 우리 스스로 길을 찾고 만들어 가라는 말씀이었다. 부처님조차도 의지하지 말라는 금언이다. 부처님께서 ‘홀로걸사’의 주창자가 되신 까닭이다. 동국대 인도철학과 교수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진이야기

입적(入寂)

고요 속으로 떠난다. 의심할 수 없는 고요 속으로. 벗어놓은 몸이 그 동안의 이름과 기억을 태운다. 이름 몇 자와 한나절만에 다 타버린 기억. 고요 속으로 떠나는 이는 그제 다왔다고 말한다.

이별이다. 나는 나의 길이 있고, 너는 너의 길이 있어서 오늘 이 순간이 슬프고, 나는 네가 될 수 없고 너는 내가 될 수 없기에 남아 있는 날들은 안타깝다. 눈물로 읽어 내린 조사(弔辭)도 밤새 촛불 밑에서 쓴 만장도 모두 남아있는 우리를 위한 것일 뿐. 고요 속으로 떠난 이는 뒤돌아보지 않는다.

누군가 또 고요 속으로 떠났다. 밤하늘엔 달이 하나. 무슨 뜻일까. 달빛 아래 숲이 하나. 무슨 뜻일까. 그는 이제 알았으리. 고요 속에서.



찬덕불교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책임 시공합니다.

전선(케이블) -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 안산 월강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 도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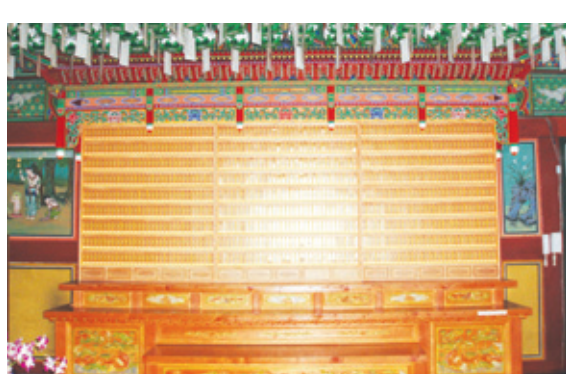
연등 자동 승강장치 - 흥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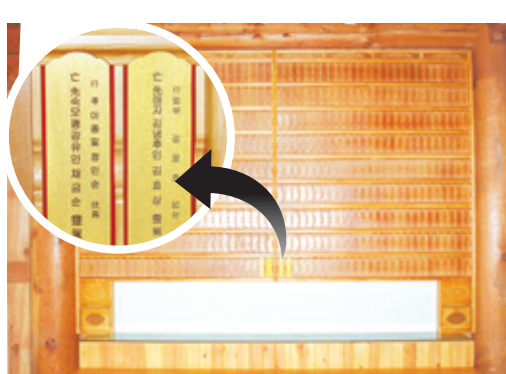
윤장대 인등



용주사 LED 인등



보급형 위패



고급형 위패

아름다운등



팔각접등영가등



만월영가등



공 단 등



오색공단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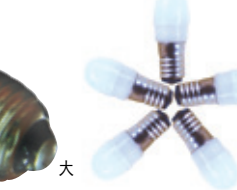


만 월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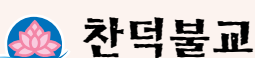


종 등

신상품 찬덕 LED 전구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자기요금: 98원/1kwh



찬덕불교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031)792-6288, 794-4055 / 팩스: 031)794-6288

www.chanduk.com

취급품목: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시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